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마이크로인슈어런스, 빈곤 아동에게도 보험 혜택을 제공

- 소액서민금융재단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빈곤 아동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고자 정책성 보험의 일종인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신고·수리하였음.
  - 이는 빈곤층의 소액신용대출인 Micro-Credit과 유사한 개념으로 저소득층이 아주 적은 보험료를 내고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임.
- 동 상품은 빈곤 아동의 보장수요에 맞추어 각각의 생·손보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였으며, 보험료는 180만원 내외의 일시납 형태로 피보험자의 가입연령별 보험료가 상이하도록 설계되었음.
  - 보장내용으로는 피보험자인 수혜아동의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입원급여금, 상해로 인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, 학자금·생활자금 목적의 급부로 구성됨.
  - 또한, 부양자 사망시 빈곤아동에 대한 생활지원 목적으로 부양자의 사망 및 후유장해보험금이 설계되어 있음.
- 아울러 상법(§732) 상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설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피보험자인 수혜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까지의 기납입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가운데 큰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면서 보험계약은 소멸됨.
- 보험회사는 소액서민금융재단과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계약을 체결하고 빈곤 아동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관련 위험보장을 지원함에 따라 수혜아동 가계의 생활향상은 물론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.

(소액서민보험\_마이크로인슈어런스 상품 신고수리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, 11/19)